

목 차

일괄신고추가서류.....	1
요약정보	3
1. 핵심투자위험	3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6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8
1. 공모개요	8
2. 공모방법	9
3. 공모가격 결정방법	9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2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5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7
III. 투자위험요소.....	27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57
V. 자금의 사용목적	62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64
【 전문가의 확인 】	66
1. 전문가의 확인	66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66

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2015년 06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윤종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전 화) 02-2073-7114
 (홈페이지) <http://www.kb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이재근
 (전 화)02-2073-282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KB금융지주 제9회 무보증사채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50,000,000,000 원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KB금융지주 제9회 무보증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제9회 권면금액 금 일천오백억원(W15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 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15년 05월 15 일(2015년 05월 26일)
	발행예정기간	2015년 05월 26일 ~ 2016년 01월 31일
	발행예정금액(A)	45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매출실적	모집·매출 일자	모집·매출금액
	2015년 06월 23일(제7회)	150,000,000,000원
	2015년 06월 23일(제8회)	100,000,000,000원
	합 계(B)	250,000,000,000원
잔 액 (A-B)		200,000,000,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HMC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SK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케이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메리츠종금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주)BNK투자증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p>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p> <p>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p> <p>다. 금융지주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p> <p>라.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p>

회사위험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자회사 주식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입니다.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자회사의 실적부진은 당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당 그룹이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 그룹의 비은행부문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은행부문이 그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가운데 은행부문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비은행부문은 은행부문과 달리 해당 업계내에서 차지하는 시장지위 및 규모 등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당 그룹의 LIG손해보험 편입 승인, 우리파이낸셜 지분 인수 등 수익구조 다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업계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망입니다.

라.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 우수하나 사업라인 확충 전략으로 자본적정성이 변동할 가능성 존재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기업 부실화 및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건전성 우려가 있으며 글로벌 경기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 당사는 2013년 6월 말 ING그룹으로부터 ING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KB생명보험 잔여지분 49%를 인수하였으며, 당사가 보유하는 KB생명보험 지분은 51%에서 10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위해 2013년 6월 19일 예금보험공사와 예한솔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9월 2일부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3일부로 KB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사. 2015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 순이익은 6,132억원으로 2014년 1분기 기준 분기 순이익 3,592억원 대비 70.7%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 환급 등의 일회성 요인과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증가, 건전선 개선에 따른 총당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1분기 보고서는 2015년 05월 15일에 공시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업의 특성상 다수 회원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 관리 및 여러가지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직원에게 의한 유출, 해킹에 의한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제재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당사는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2월 24일 우리금융지주와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우리파이낸셜의 지분 52.02%(11,180,630주)를 거래종료일('14.3.20)에 양수하였으며, 케이비캐피탈(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지표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차.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2014년 10월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 결정 등으로 당사와 주요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임원진에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9월 당사의 이사회가 임영록 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2014년 11월 21일 전 KB금융 부사장이었던 윤종규 회장이 당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10일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결정하였고, 경영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또한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 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이사 8명에 대한 선임을 결의하여 이사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진 부재에 대한 경영공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로서 향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의 평판, 시장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는 2014년 05월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당사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본 건 인수 등으로 수반된 동사의 재무적인 부담 정도를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p>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해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p> <p>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p> <p>마.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의사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 9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총액	15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50,000,000,000
발행가액	150,000,000,000	권면이자율	2.520
발행수익률	2.520	상환기일	2022년 06월 23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평가(AAA)/한국신용평가(AAA)/NICE신용평가(AAA)		

인수인	증권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	------	------	------

		종류				
대표	HMC투자증권(주)	-	5,000,000	50,000,000,000	인수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SK증권(주)	-	3,000,000	30,000,000,000	인수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케이비투자증권(주)	-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메리츠증권(주)	-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키움증권(주)	-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주)BNK투자증권	-	1,000,000	10,000,000,000	인수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5년 06월 23일	2015년 06월 23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기타자금	150,000,000,000
발행제비용	323,96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p>▶ 본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되거나 청약자의 신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분에 대하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채권의 수량만큼을 기재함으로써 등록필증에갈음함.</p> <p>▶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일만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p>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9]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권 면 총 액		150,000,000,000
할 인 율 (%)		0.00
발행수익율 (%)		2.52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공사채등록법령에 의한 등록발행으로 실물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	2.52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사채"의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각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5년 09월 23일, 2015년 12월 23일, 2016년 03월 23일, 2016년 06월 23일, 2016년 09월 23일, 2016년 12월 23일, 2017년 03월 23일, 2017년 06월 23일, 2017년 09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2018년 03월 23일, 2018년 06월 23일, 2018년 09월 23일, 2018년 12월 23일, 2019년 03월 23일, 2019년 06월 23일, 2019년 09월 23일, 2019년 12월 23일, 2020년 03월 23일, 2020년 06월 23일, 2020년 09월 23일, 2020년 12월 23일, 2021년 03월 23일, 2021년 06월 23일, 2021년 09월 23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15.06.04 / 2015.06.05 / 2015.06.05
	평가결과등급	AAA / AAA / A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HMC투자증권(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22년 06월 23일(7년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금상환 연체시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22년 06월 23일
	납 입 기 일	2015년 06월 23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회 사 명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지급대행기관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인수단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같음함.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에 따라 아래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제9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520%**로 합니다. 이는 청약일 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구.NICE채권평가(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7년 만기 KB금융지주(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값으로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1) 공모가격 결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에 따라 최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구.NICE채권평가(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동일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및 당사의 최근 최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동일 신용등급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사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최근 동일등급 기업의 원화 무보증사채 발행금리 및유통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발행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9회 무보증사채]

2.520%로 함. 청약일 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구.NICE채권평가(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7년 만기 KB금융지주(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

(2) 공모가격 산정 근거

①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구.NICE채권평가(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7년 만기 KB금융지주(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 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KB금융지주(주) 7년만기 개별민평금리]

(단위: %)

일 자	평가금리(%)		Credit Spread(%p.)
	국고채권	KB금융지주 7년 개별민평금리	KB금융지주 7년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권
현재 (2015-06-22)	2.306	2.490	0.184
1주일 전 (2015-06-15)	2.291	2.475	0.184
1개월 전 (2015-05-22)	2.281	2.463	0.182

자료: KOFIA BIS, Bondweb

②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구.NICE채권평가(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7년 만기 주요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 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의 국고 7년 대비 스프레드]

(단위: %)

	국고채권 (A)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B)					
		농협	신한	하나	SC	DGB	BNK
7년 만기	2.306	2.487	2.485	2.488	2.511	2.538	2.514
스프레드 (B-A)	-	0.181	0.179	0.182	0.205	0.232	0.208

주1) 상기 지주회사는 당사와 동일 신용등급인 AAA등급임

주2) 금리 산정 기준일은 2015년 06월 22일임

자료: KOFIA BIS, Bondweb

③ 최근 동일 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유사등급(AAA) 회사채 발행 사례 중 7년만기로 발행한 회사채 발행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6개월 내 동종업계 동일등급 7년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단위: 억
원, %)

발행일	구 분	발행규모	만기	표면금리	최종금리	발행방식
-----	-----	------	----	------	------	------

2015.03.10	하나금융지주31	1,000	7년	2.354	KB금융지주-1.0bp	일괄신고
2015.02.26	KB금융지주6	300	7년	2.377	KB금융지주+1.9bp	일괄신고

주1) 비교목적상 해당 만기별 KB금융지주 만평금리와의 스프레드로 환산함

주2) bp(Basis Point)는 100분의 1%(0.01%p.)를 의미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ondweb

[최근 동일등급 7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단위: 억원, %)

발행일	만기	발행회사	신평등급	발행규모	발행금리	발행방식
2015.06.04	7년	한국남부발전33-2	AAA	400	2.402	일괄신고
2015.04.29	7년	한국중부발전33-2	AAA	800	2.243	일괄신고
2015.02.26	7년	SK텔레콤66-1	AAA	1,000	2.402	증권신고
2014.11.12	7년	한국중부발전29-2	AAA	500	2.579	일괄신고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ondweb

발행일 전일기준 Spread 산출 결과 7년 만기의 경우 2차례 발행이 있었으나 발행사가 SK텔레콤, 발전자회사인 관계로 그 유사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유사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단위: 억원)

발행일	만기	발행회사	신평등급	발행규모	공모희망금리 구간	공모희망금리 상단 설정 수준	발행금리
2015-06-04	7년	기아자동차	AA+	2,000	개별민평+(-16~+4)	개별민평+4bp	개별민평+3bp
2015-05-29	7년	호텔신라	AA	1,200	개별민평+(-17~+3)	개별민평+3bp	개별민평+0bp
2015-05-29	7년	미래에셋자산운용	AA	500	개별민평+(-10~+20)	개별민평+20bp	개별민평+10bp
2015-05-28	7년	LG상사	AA-	700	개별민평+(-16~+4)	개별민평+4bp	개별민평+4bp
2015-05-26	7년	현대제철	AA	2,000	개별민평+(-13~+7)	개별민평+7bp	개별민평+3bp
2015-05-13	7년	현대위아	AA	1,000	개별민평+(-16~+4)	개별민평+4bp	개별민평+0bp
2015-05-07	7년	LG디스플레이	AA	800	개별민평+(-18~+2)	개별민평+2bp	개별민평+0bp
2015-05-07	7년	LG하우시스	AA-	1,000	개별민평+(-17~+3)	개별민평+3bp	개별민평-6bp
2015-04-29	7년	LS산전	AA-	500	개별민평+(-17~+3)	개별민평+3bp	개별민평+5bp
2015-04-29	7년	SK네트웍스	AA-	800	개별민평+(-16~+4)	개별민평+4bp	개별민평-3bp
2015-04-28	7년	GS칼텍스	AA	500	개별민평+(-25~+5)	개별민평+5bp	개별민평-10bp
2015-04-22	7년	CJ제일제당	AA	1,000	개별민평+(-18~+2)	개별민평+2bp	개별민평+1bp
2015-04-22	7년	포스코에너지	AA+	1,000	AA+ 등급+(-5~+15)	AA+등급+15bp	AA+등급+14bp
2015-04-21	7년	LG유플러스	AA	800	개별민평+(-18~+2)	개별민평+2bp	개별민평-3bp
2015-04-16	7년	LG CNS	AA-	500	개별민평+(-18~+2)	개별민평+2bp	개별민평-10bp
2015-04-13	7년	현대엔지니어링	AA-	1,000	개별민평+(-16~+9)	개별민평+9bp	개별민평+2bp
2015-03-27	7년	현대오일뱅크	AA-	1,000	개별민평+(-10~+10)	개별민평+10bp	개별민평+10bp
2022-03-18	7년	피엠피	AA+	1,000	AA+ 등급+(-20~+10)	AA+등급+10bp	AA+등급+10bp

주1) 공모희망금리 상단 설정수준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각 발행회사 동일 만기물의 민평금리 수준 대비 공모희망금리 수준임.

주2) bp(Basis Point)는 100분의 1%(0.01%p.)를 의미

주3) 발행규모는 최종 발행금액을 의미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Freebond

7년만기 회사채의 경우 개별민평금리 + 2bp ~ + 20bp 수준으로 공모희망금리 상단이 설정되었고, 수요예측 결과 -10bp~ + 10bp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유사등급 동일 만기의 회사채의 경우더라도 개별 민평금리는 각 기업의 재무구조, 그룹사의 안정성등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유사등급 발행회사간의 금리는 통상 업종유사성, 영위업종의 향후 전망, 회사규모, 재무구조의 유사성, 연간 발행규모 등 다양한 종류의 변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으로 유사등급 회사채를 선정하기에는 유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④ 채권시장동향

2014년 국내 채권시장은 2013년 하반기의 경기회복 기대감 및 미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인상 우려에 대한 과도한 선반영을 되돌림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가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 위축,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에 따른 공사채 발행 축소 등 수급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반기 중 점진적인 금리 하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부양책으로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금리하락 추이가 지속되며 국내 채권시장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초 채권시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운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 유가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추가 재정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채권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2015년 4월 23일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던 한은의 1분기 GDP 발표와 MBS 대량 미매각사태, 미국 금리인상 우려 재점화 등으로 인해 그간 하락했던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기준 30bp~40bp 가량 반등했으며 이후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장중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딧 채권 시장도 2014년부터 2015년 4월중순까지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라 국고채 대비 금리메리트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수요예측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금리가 다시 반등하며 불안정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관망심리를 보여 약간은 수급이 약해진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채권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AA급 우량한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가 개별민평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된 점, 변동성 장세 상황 하 발행금리의 금리변동의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가.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조 제3항의 제17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약이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전문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한 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 2) 전문투자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가액 총액에서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라 함)을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이후 15시까지 청약 접수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을 최저청약단위로(1만원, 이하 동일함)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 3) 일반청약자의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3)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8항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3항제3호 및 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나. 청약단위

최저권면액은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작일	2015년 06월 23일
	종료일	2015년 06월 23일

라.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지점

바. 납입장소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사. 상장신청예정일

2015년 06월 23일에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 신청 예정임.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는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자.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함.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2)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단,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15년 06월 23일에 본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다.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하여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 등록필증이 교부됨.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인수]

[제9회]

(단위 : 백만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 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HMC투자증권(주)	001379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50,000	0.15	-
SK증권(주)	001318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30,000	0.15	-
케이비투자증권(주)	002193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0,000	0.15	-
메리츠증권(주)	001636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0,000	0.15	-
키움증권(주)	00296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20,000	0.15	-
(주)BNK투자증권	002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10,000	0.15	-
합 계	-	-	150,000	0.15	-

[사채의 모집위탁]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한국증권금융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150,000,000,000	2,000,000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백만원)

회 차	금 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9회	150,000	2.520	2022.06.23	-
합 계	150,000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9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도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2.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6월 23일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채관리회사		대표 전화번호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기타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02-3770-88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150,000,000,000	2,000,000	-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사채관리팀	02-3770-8605, 8646, 8629

2) 기한이익 상실사유

본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은 "사채관리계약서" 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주)K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p>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사채</p>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일천오백억원(W150,000,000,000)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00%(할인율 0.00%)
5.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금 일천오백억원(W150,000,000,000)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증: "본 사채"의 경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같음한다.
7. 사채의 이율: "갑"과 "인수단"이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이율을 따른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22년 06월 23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그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자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 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제9회]

2015년 09월 23일, 2015년 12월 23일, 2016년 03월 23일, 2016년 06월 23일,
2016년 09월 23일, 2016년 12월 23일, 2017년 03월 23일, 2017년 06월 23일,
2017년 09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2018년 03월 23일, 2018년 06월 23일,
2018년 09월 23일, 2018년 12월 23일, 2019년 03월 23일, 2019년 06월 23일,
2019년 09월 23일, 2019년 12월 23일, 2020년 03월 23일, 2020년 06월 23일,
2020년 09월 23일, 2020년 12월 23일, 2021년 03월 23일, 2021년 06월 23일,
2021년 09월 23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10.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 처리장소: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

11. 연체이율:

본조 제8호 또는 제9호의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 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갑"이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내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 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2. 발행방식: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며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한다.

13.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기타자금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을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

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있는 경우 (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 휴업은 제외한다.)

(마)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 하는 경우

(바)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갑"이 "본 사채"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아)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갑"이 본 사채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을"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카) 기타 사정으로 "갑"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갑"이 "본 사채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을"이 판단하였을 때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차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 기준을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 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3) 사채관리회사와의 계약사항

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와의 관련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 상의 제4절 사채관리회사를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주)K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총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총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총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총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총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총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총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다.
-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이백만원(₩ 2,000,000원)을 사채금 납일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 ④ “을”은 상환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구분	원리금지급	재무비율유지	담보권설정 제한	자산매각한도	타채무 불이행금액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 사유)
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미만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채무 중 원금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국민은행 여의도법인영업부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 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 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동 재무비율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

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해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별도 재무제표 기준)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② “갑”은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분		해당 여부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사항 없음
대출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구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계약체결 건수	79건	112건	41건	232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14조 5,060억원	23조 4,037억원	8조 7,640억원	46조 6,737억원

* 업무개시일 : 2013.1.18

7)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 금번 (주)KB금융지주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아래 투자위험요소를 특히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의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에 대한 원리금지급 능력이 저하되거나 지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무보증 사채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당사와 인수단이 모두 부담하며,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KB금융지주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의 투자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문제로 파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한 금융산업 내부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 것처럼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2011년 1월 MENA사태(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의 민주화바람에 의한 정치, 경제불안), 3월 일본대지진, 5월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 초 일본과 중국의 유동성 공급, 3월 그리스 구제금융안 최종 승인, 2012년 9월 미국 제3차 양적완화 시행 발표 및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결정 등 글로벌 유동성 정책 공조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미 FOMC에서 연준은 기준 850억달러의 자산매입 규모를 750억달러로 한차례 축소한 이후 현재까지 FOMC 개최시마다 100억달러 추가 축소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이슈로 인해 주요 아시아 신흥국에는 외자 이탈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으며,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등의 신흥국 환율이 급변동 하면서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5년 들어 글로벌 18개국 이 잇따라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통화정책 완화가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G10 통화국인 유로존,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도 통화정책 완화에 동참했으며, 11개 신흥국도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특히 스위스(1/15), 인도(1/15), 캐나다(1/21), 싱가포르(1/28), 호주(2/3), 중국(2/4) 등이 시장 예상과 달리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통화정책 운용여력이 확대된 가운데 경기진작, 디플레이션 방어와 인접국 통화정책 완화의 파급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대응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가	통화정책 변화	국가	통화정책 변화
아이슬란드	12/10일 50bp인하(5.25%)	브라질	1/21일 50bp인상(12.25%)
노르웨이	12/11일 25bp인하(1.25%)	유로존	1/22일 양적완화 발표
모로코	12/16일 25bp인하(2.50%)	파키스탄	1/24일 100bp인하(8.50%)
우즈벡	1/1일 100bp인하(9.00%)	싱가폴	1/28일 통화 절상속도 완화
루마니아	1/7, 2/4일 25bp인하(2.25%)	알바니아	1/28일 25bp인하(2.00%)
스위스	1/15일 환율하한 폐지, 50bp인하	뉴질랜드	1/29일 긴축기조 문구 삭제
인도	1/15일 25bp인하(7.75%)	러시아	1/30일 200bp인하(15.00%)

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험 및 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지주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3년까지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과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당사가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구조 재편이 은행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자로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등을 거쳐 2012년 2월 9일자로 인수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은 계열 합산 기준으로 은행부문 여수신 점유율 2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 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매각작업으로 인해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등의 계열사가 계열 분리되는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2014년 06월 이사회 결의와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LIG손해보험 주식 19.47%를 취득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LIG손해보험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 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의 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사업의 내용	계열사
은행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국민은행
여신전문업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KB캐피탈
금융투자부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투자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생명보험
저축은행부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업무 등	KB저축은행
기타부문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	KB신용정보 KB데이터시스템

주1) 2014.3.20 KB캐피탈이 자회사 편입되었음.

● 은행업

○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지속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규제가 도입되는 등으로 은행 산업의 성장성이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 은행의 대출자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금은행 원화 총대출금, 총예금]

(단위: 조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말잔	증감액	말잔	증감액	말잔	증감액	말잔	증감액	말잔	증감액	말잔	증감액	말잔	증감액
대출	954	37	987	33	1,063	76	1,100	37	1,155	55	1,250	95	1,273	23
예금	751	76	874	123	948	74	990	42	1,010	19	1,081	71	1,093	2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 감소, 고용감소에 의한 가계부문의 상환여력 감소, 그리고 담보자산가격의 하락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충당금 적립 등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 및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농협금융지주 출범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활성화에 따라 수익성 하락의 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 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대출과 예금경쟁이 나타나며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율(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은행 NIM 추이]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NIM	2.15	2.43	2.42	2.21	1.94	1.8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일반은행계)

※예대마진 :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

※NIM(Net Interest Margin) :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 경쟁상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은행의 대출재원에서 저원가성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 수익성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 자금조달 구성비]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원가성자금조달	77.42	78.97	78.64	79.15	79.07	79.37
(원화예수금)	44.01	52.37	56.61	58.19	59.34	60.15
(원화양도성예금증서)	7.66	4.48	1.95	1.1	0.94	0.87
(원화사채)	9.92	8.52	6.47	5.88	5.42	5.11
(기타)	15.83	13.61	13.61	14.00	13.37	13.24
무원가성자금조달	22.58	21.03	21.36	20.85	20.93	20.63
(요구불예금)	4.44	4.79	4.98	5.06	5.46	5.83
(기타)	18.14	16.24	16.37	15.79	15.47	14.8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일반은행계)

○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산업간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6개 법률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중금업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하여 정비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중 지급결제, 신탁업무 등 은행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간 자금유치경쟁이 예상되고,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금융상품 공급은 고객자산이 은행의 예금으로부터 이탈될 유인을 제공하여 은행의 수신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투자은행기능의 강화는 투자은행의 회사채 인수 및 개별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촉진하여 일반은행의 여신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은행이 우수한 자금력과 영업망을 바탕으로 소매금융 강화 등에 따른 비이자부문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또한 있으며, 대형 은행의 경우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금융투자회사를 보유 또는 설립함으로써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신용카드 회원)가 각종 재화 및 용역의 제공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신용카드 이용)하거나 회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융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지출 증감 및 국내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실제로 국내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실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신용카드 이용실적			합 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2001	110.8	44.2	254.1	409.2
2002	181.1	74.2	367.8	623.1
2003	189.9	50.4	24.0	480.3
2004	188.0	41.9	127.6	357.5
2005	213.0	45.2	105.2	363.5
2006	234.2	49.0	91.6	374.8
2007	258.6	57.6	85.8	401.9
2008	291.8	69.0	88.8	449.5
2009	304.9	71.7	81.5	458.0
2010	330.1	82.3	81.3	493.8
2011	354.8	87.8	80.2	522.8
2012	382.8	95.3	75.0	553.1
2013	401.6	87.9	68.3	557.8
2014	409.0	92.2	63.3	564.5

* 자료 : 한국여신금융협회

—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 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할부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카드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익성 및 자산건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구분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2004.12월	N/A	17.24	23.01	13.33	2.80
2005.12월	N/A	7.89	15.83	4.28	2.09
2006.12월	1.47	5.34	8.95	2.19	2.10
2007.12월	1.12	3.65	6.26	0.45	1.51
2008.12월	1.46	3.33	5.42	0.73	1.88
2009.12월	1.09	2.92	2.97	0.35	1.25
2010.12월	1.02	2.01	2.58	0.46	1.42
2011.12월	1.51	2.27	2.66	0.56	1.96
2012.12월	1.26	2.62	1.68	0.68	2.23
2013. 12월	1.82	2.15	1.71	0.83	1.94
2014. 12월	1.59	2.18	1.47	0.88	1.48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2)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국민은행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 신용카드사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 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계는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유상증자, 연체율 관리, 효율적 비용 조정, 보수적 회원관리,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통해 꾸준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해 왔으며, 경영여건이 개선된 2009년 하반기 이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회원 유치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함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 또한 영업수익과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높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가맹점 및 소비자 단체의 수수료율 인하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012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애 앞서 자율적으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개선 및 인하를 유도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	경제활동인구 (천명)	카드수 (천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카드수(매)	가맹점수 (천점)
2001	22,417	89,330	4.0	12,627
2002	22,877	104,807	4.6	15,612
2003	22,916	95,517	4.1	16,949
2004	23,370	83,456	3.6	17,095
2005	23,743	82,905	3.5	16,124
2006	23,978	91,149	3.8	17,037
2007	23,993	89,565	3.7	14,701
2008	24,347	96,248	4.0	15,612
2009	24,063	106,993	4.4	16,568
2010	24,748	116,589	4.7	17,699
2011	25,099	122,138	4.9	18,213
2012	25,501	116,374	4.6	14,923
2013	25,873	102,031	3.9	17,475
2014	26,536	92,321	3.5	17,914

* 자료 : 여신금융협회, 통계청

주1) 1인당 카드수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신용카드 세제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레버리지 규제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직불형카드 이용활성화 등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당사의 영업성과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식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신용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카드사 부실화 우려로 카드산업에 대한 각종 감독법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으며 회원모집에 대한 규제 강화, 현금서비스 등 대출업무에 대한 업무비중 규제 도입, 자기자본비율 요건 강화, 연체율 산정기준 강화 등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 2011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으로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밀착 감시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지속시 엄중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으로 자금조달 규제의 전면 정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신용카드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러가지 규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 규제 도입 추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직불형카드 이용 활성화 등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자회사인 케이비국민카드는 신용카드업의 특성상 다수 회원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 및 여러가지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직원에 의한 유출, 해킹에 의한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제재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은 국내외 경제 상황 및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환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00년 초반까지 유가증권 위탁중개수수료로 수익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시장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익구조의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위탁중개업 일변도의 단순한 사업구조로 인하여 사업의 성장성이 불투명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사업구조 다각화를 위하여 자산관리사업, IB 및 트레이딩 사업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유가증권의 위탁중개수수료 수익비중이 높고 시장의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 2008년~2009년 초 국내외 경제환경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신용리스크의 증대, 환율 급등, 실물경기의 급격한 위축 등 전반적인 불안요소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의 경우, 국내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국내외 경기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 이와 같은 자본시장 제반 여건 악화는 2008년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 저하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은 환율 하락에 따른 무역흑자지속, 미국의 경제 위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 전 세계 국가들의 통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여러 경제 상황의 지표들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2010년 5월 그리스 위기 이후 본격화된 유럽존 재정위기, 2011년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더블딥 우려 및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당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가는 2011년 08월에 비해 회복된 수준이나 향후 국가간 정책당국의 공조 여부에 의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시장 추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 동향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종목수	1,964	1,932	1,940	1,974	1,962	1,961
KOSPI지수	1,915.6	2011.3	1,997.0	1,825.7	2,051.0	1,682.8
KOSDAQ지수	543.0	500.0	496.3	500.2	510.7	513.6
일평균 거래량	633	723	1,077	897	1,024	1,263
일평균 거래대금	59,539	58,168	69,528	91,132	75,444	78,942

주 : 종목수, 일평균 거래량, 일평균 거래대금은 KOSPI, KOSDAQ 합산 수치이며, 각 기말 기준임

자료 : KRX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은 국내 경제 여건 및 증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에 기인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며, 시장 금리나 주가지수, 자산가격 등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성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손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손익은 주식수탁수수료 등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운영업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이며,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수탁수수료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이익변동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향후 국내의 시장변수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주식수탁수수료로 2007년 71.35%에서 지속적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14년 전체 수수료 수익의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 규모가 감소할 경우, 주식수탁수수료수익의 감소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규제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자본시장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진입과 업무영역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시장참여자 증가 및 은행, 보험, 외국계 금융기관 등 수많은 경쟁사들간의 출혈 경쟁

이 심해질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투자회사는 시장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거 금융투자업은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수탁수수료 수익에의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거래대금 규모 및 거래 수수료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투자업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의 확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금융자산 증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들의 주식 편입비중 확대,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의 이동, 자본시장법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국내 금융투자업은 수수료 경쟁의 심화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단순 위탁·중개영업에서 종합자산관리 및 투자은행 영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의 출혈 경쟁으로 수수료 중심의 영업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은 2012년 들어 크게 저하되었는데, 이는 주식거래규모 감소로 증권사의 수탁수수료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환경 내 불확실성 증대로 위험자산 관련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자산관리 및 IB부문의 수익규모가 감소한 것도 추가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점과 인력을 축소하는 등 고정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유가증권 등 운용자산 규모 증가에 따른 금융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향후 금융환경은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진입, 합병, 금융지주회사 설립 확대, 종합 금융투자사업자의 탄생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자기자본확대 등을 통한 대형화 및 생존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휴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투자업은 수익구조 다변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특히, 은행계 금융투자회사는 열위한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자본력과 지점망을 통한 판매채널 장악력, 고객기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금융투자회사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금융상품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채널 열위로 인하여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신규고객 확보와 금융상품 판매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투자회사 중 증권회사는 총 58개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은행 및보험 등 여타 금융업에 비해 고객유치 및 영업에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겸업의 허용으로 업권간의 경계가 무너져 경쟁강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금융투자업 시장은 2014년 12월 현재 총 58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권역별 회사수 (2014년 12월 현재)]

구 분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
회사수	18개	31개	25개	58개

—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만, 아직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차별화된 상품과 Service를 통한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부분의 증권사는 가격정책을 경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고객유치 및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탁중개업에서는 '박리다매'형 최저가 온라인 주식중개(Deep Discount)를 경쟁수단으로 활용하는 증권사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8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익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탁매매부문이 증권사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증권사의 수익성제고를 위해서는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최근 금융업권간에는 겸업 허용에 따른 은행/보험의 수익증권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단기간에 판매실적을 상승시키는 등 증권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증권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의 경우 폭넓은 점포망과 고객기반을 활용한 상품판매 역량은 증권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

— 2015년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 또한 금융시장 회복 지연과 보험영업 규제 강화 등으로 신계약의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 2015년 금융, 보험관련 제도 및 정책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기조로 신계약비와 사업비 이연축소 등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이자역마진 및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등 수익성 저하로 생보사 경영건전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장 내 경쟁구도 역시 지속적으로 선도그룹 및 기타 그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룹 간 Gap이 확대되는 등 경쟁구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M&A이슈 및 일부 중형 생보사의 IPO를 통한 재도약 기회 모색, NH농협생명의 영업 본격화 및 외자계 보험사에서 시작된 스카우트 경쟁 등으로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며, 삼성, 교보 등 대형사가 중심이 된 온라인 직접판매채널 신설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손해보험 업계 4위의 시장점유율(14%대)을 유지 중인 LIG손해보험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 지분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LIG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하여 2014년 05월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최종 우선인수 협상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LIG손해보험 지분 11,682,58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당사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고,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 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국내 13개 원수보험사중 상위 4사가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LIG손해보험의 인수는 당사의 수익성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업계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위한 RBC제도가 2011년 본격 시행되었으며 감독당국은 150%를 권고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하락 및 산출방법의 강화 등으로 일부 보험사의 RBC 비율이 하락하여 증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업

—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으로 2004년 말 기준 113개였던 저축은행 수는 2014년 12월 기준 8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이었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PF대출 사업장의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 경기침체와 신용위험 증가, 규제강화에 따른 신규 대출 감소로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익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보유 대출자산에서의 추가 부실 발행 가능성으로 인해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자회사 주식이고, 현금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입니다.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자회사의 실적부진은 당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 9월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의 주식을 포괄 이전하여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 여건과 같은 대외적인변수로 인해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배당수입 또한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보험, KB자산운용 등 11개 자회사 및 국민은행의 해외 현지법인과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11개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총자산(2015년 3월말 315.8조원), 연결 자기자본(27.9조원) 규모 기준 국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 금융그룹입니다. 2011년 3월 국민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주)KB 국민카드로 인적 분할하여 회사의 완전 자회사(지분율 100%)로 편입되었습니다. 2014년말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9.4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5%이상 주주로DR예탁기관인 The Bank of New York Mellon이 8.4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주주이자 제휴관계에 있던 ING Bank N.V.는 2013년 2월 회사의 보유지분(5.02%)를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2015년 1분기 기준 주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2015년 1분기		
	자산	부채	자본
(주)국민은행(*1)	282,129,802	259,846,906	22,282,896
(주)KB국민카드(*1)	15,725,596	12,148,106	3,577,490
KB투자증권(주)(*1,2)	4,570,034	3,981,972	588,062
KB생명보험(주)(*1)	7,920,327	7,316,128	604,199
KB자산운용(주)(*1)	168,840	34,503	134,337
KB캐피탈(주)(*2)	4,245,198	3,776,527	468,671
(주)KB저축은행	797,968	643,986	153,982
KB부동산신탁(주)	211,035	21,450	189,585
KB인베스트먼트(주)(*1)	215,464	83,831	131,633
KB신용정보(주)	28,186	7,915	20,271
(주)KB데이터시스템	22,309	8,260	14,049

(*1) 연결기준으로 산출된 재무정보임.

● 은행업 자회사 위험 (국민은행)

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해 높은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요구불예금 등 저 원가성 예금비중이 12% 수준으로 시중은행 평균수준(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은 조달 부문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카드사업부문의 분사에도 불구하고 주 수익원인 핵심이익(순이자이익+수수료 이익)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수익성 지표가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은행의 이익기반은 공고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농협금융지주의 출범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로 당분간 은행산업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은행 영업자산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저금리 기조에 따른 NIM의 저하, 국공채 등 안정성 위주의 유가증권 운용, 파생/외환관련 수익감소 및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충당금적립 부담 등으로 순이익이 하락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순이자마진 상승에 따른 이자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적립부담 증가와 카자흐스탄

현지 은행인 BCC(Bank Center Credit) 관련 지분법투자손실 지속, 대규모 명예퇴직급여 지급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112 억원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11년 카드사업부문의 분사로 수익기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이익의 증가 등 핵심이익의 수익성을 회복하였고, 일회성 유가증권매각이익 및 충당금적립부담 감소로 순이익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비교적 큰 폭의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인한 이자순이익 감소와 외환손실 및 유가증권운용손실로 인한 비이자순이익 감소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5.3% 감소한 1조 2,996억원을, ROA는 0.5%를 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2년 순이자마진이 32bp 떨어져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하락 및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인 신용카드채권의 소멸, 고금리 예금상품 판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3년말 기준 순이자마진은 1.91로 전기 대비 0.26 하락면서, 당기연결순이익 1조 2,747억원으로 2012년 당기연결순이익 1조 7,401억원 대비 26.7%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순이자 마진은 1.81로 전기대비 0.10 하락하였지만, 당기연결순이익은 1조 4,151억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에 발생한 일회성 손실 요인 소멸 및 건전성 개선에 따른 충당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15년 1분기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6,132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70.7%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환급 등의 일회성 요인과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증가, 건전성 개선에 따른 충당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국민은행 수익성 현황]

(단위: %)

구분	국민은행						시중은행 평균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원화에대금리차	1.90	2.04	2.26	2.55	2.94	3.37	2.25	2.56	2.83	2.91
명목순이자마진(NIM)	1.72	1.81	1.91	2.18	2.50	2.77	1.88	2.15	2.35	2.36
총자산순이익률(ROA)	0.59	0.33	0.30	0.48	0.69	0.00	0.34	0.51	0.69	0.5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7.95	4.51	4.21	7.02	9.76	0.06	4.57	7.06	9.27	7.27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주2) ROA, ROE : 연환산수치임

자료) 국민은행 2015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은 지주사 주식 매각과 2008년, 2009년 2차례 걸친 8천억 원의 유상증자 시행, 총 4.6조 원의 자본확충성 자금조달(후순위채권 3.5조 원, 신종자본증권 1.1조 원)을 통해서 자본적정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11년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자본감소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1조 원) 조기 상환 등의 영향으로 이익잉여금 증가와 후순위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2011년 BIS비율은 13.55%를 나타내었습니다. 2012년 후순위채 발행과 이익잉여금 증가등으로 BIS기준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BIS비율은 14.40%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2013년 15.42%, 2014년 15.97%, 2015년 1분기 16.37%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민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국민은행	16.37	15.97	15.42	14.40	13.55
시중은행 평균	-	15.12	15.38	14.90	14.29

주1)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BASEL III 기준

주2) 2012년, 2011년 BASEL II 기준

자료) 국민은행 2015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여신을 위주로 신규 발생 부실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주 영업부문인 가계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총여신을 확대하지 않고, 'PF정상화뱅크'를 통해 매각 및 상각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진행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1년말 기준 1.43%에서 2012년말 기준 1.36%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13년말 기준 기업부문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늘어 2.65%를 나타내면서, 가계부문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보다 0.21% 낮아진 0.70% 수준을 유지하였음에도 2013년말 기준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 대비 0.29% 높아진 1.65%를 나타내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역시 기업부문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감소와 가계여신 건전성 재고로 인해 전년 대비 0.39% 낮아진 1.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 말 전체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8%로 2014년 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 지속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부문에 대한 여신의 부실정도가 증가와 은행의 건전성 지표의 하락 추세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건전성 정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현황]

(단위: %)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합계	1.28	1.26	1.65	1.36	1.43
기업	2.21	2.20	2.65	1.82	2.05
가계	0.43	0.43	0.70	0.91	0.83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자료) 국민은행 2015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일반은행 중 동행의 예수부채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20%를 상회하는 등 견고한 수신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말 원화유동성비율과 외화유동성비율이 각각 121.08%, 116.31%로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지도비율(1개월 이내 원화유동성비율 100%,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 85%)을 상회하는 등 재무유동성은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예대율 규제에 대비한 수신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자금조달 중 예수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성 자금(차입금, 사채 및 CD)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원화예대율(CD 제외)도 2014년말 및 2013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여 2015년 1분기말 97.45%를 기록하는 등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대외의존도 및 자본시장 개방도 등으로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카드업 자회사 위험 (KB국민카드)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카드는 2011년 3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그룹의 비은행부문 경쟁력 강화 및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KB 금융지주계열의 전업카드사입니다. KB국민카드는 총자산 기준으로는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으로 크지 않으나, 은행 대비 카드산업의 높은 수익률 및 최근 국민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순이익 기준으로 그룹 내 비중이 2014년 및 2015년 1분기 각각 23.5%, 16.0%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2014년도 신용카드이용실적 기준 전업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M/S 19.7%)에 이어 삼성카드(13.6%) 및 현대카드(10.3%)와 함께 2위권의 우수한 시장지위(13.0%)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직불형 카드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카드사 점유율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KB국민카드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전체
일시불	45,047,941	77,142,025	64,794,107	51,262,387	34,761,673	31,469,069	409,009,541
할부	10,860,592	20,041,355	17,299,475	10,236,007	10,027,122	4,858,950	92,210,778
현금서비스	9,535,237	16,467,320	7,744,757	6,124,780	5,481,523	5,132,761	63,326,032
카드론	4,229,475	6,403,659	5,137,578	5,129,897	3,214,111	2,449,342	30,262,436
직불형	22,126,526	19,418,833	1,152,979	265,787	922,397	8,850,884	112,786,074
합계	91,799,771	139,473,192	96,128,896	73,018,858	54,406,826	52,761,006	707,594,861
점유율	13.0%	19.7%	13.6%	10.3%	7.7%	7.5%	100.0%

주1) 점유율 기준 : 2014년 신용카드 이용금액 누계(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직불형카드 이용금액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민은행의 카드사업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KB국민카드는 우수한 수준의 이익창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는데, 분사 직후 당사의 수익성은 저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잇단 가맹점수수료 인하, 업체간 경쟁 심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전개되는 가운데, 분사에 따른 일시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 3,844억 2014년 3,327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제고 되었고 2015년 1분기 981억원의 분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하나은행에 이어 2011년 3월 KB국민은행이 잇따라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전업카드사를 설립하면서 카드회원의 모집 및 이용실적 확대 경쟁으로 마케팅비 등 카드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2013년 4월 우리은행이 전업카드사를 설립함에 따라 업계내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이용실적 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시행에 따른 수수료율의 추가적인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 수익기반의 약화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카드자산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도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포함) 추이]

(단위:%)

구분	KB국민카드	신한	삼성	현대	롯데
2004.12월	N/A	17.24	23.01	13.33	2.80
2005.12월	N/A	7.89	15.83	4.28	2.09
2006.12월	1.47	5.34	8.95	2.19	2.10
2007.12월	1.12	3.65	6.26	0.45	1.51
2008.12월	1.46	3.33	5.42	0.73	1.88
2009.12월	1.09	2.92	2.97	0.35	1.25
2010.12월	1.02	2.01	2.58	0.46	1.42
2011.12월	1.51	2.27	2.66	0.56	1.96
2012.12월	1.26	2.62	1.68	0.68	2.23
2013. 12월	1.82	2.15	1.71	0.83	1.94
2014. 12월	1.59	2.18	1.47	0.88	1.48

주1)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2)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국민은행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09년 중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여파로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업계 전반의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나 2009년 9월 말 자산건전성 지표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어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2014년 말 기준 연체비율이 1.59%를 기록하며 2012년 1.26%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하였지만, 2013년 1.82%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의 연체율 상승에 대한 주된 요인은 2013년 1분기부터 시행한 대손상각 기준 변경(연체3개월 이상 채권 → 연체6개월 이상 채권) 및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014년 2월 17일부터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규제로 인한 자산 일부 감소에 의한 것이며, 자산건전성의 악화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연체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신용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 추이와 함께 적정 수준의 자본완충력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업의 특성상 다수 회원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 및 여러가지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직원에 의한 유출, 해킹에 의한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제재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환경은 KB국민카드의 영업 및 수익성 뿐만 아니라 당사의 수익 및 재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자회사 위험 (KB투자증권)

KB투자증권은 2008년 3월 KB금융그룹의 일원이 된 이래 핵심사업부문인 Wholesale부문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그룹의 강력한 금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Retail부문 등 신사업을 육성하며 성장하고 있는 종합금융투자회사입니다.

금융투자부문 자회사인 KB투자증권의 2015년 1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1분기 대비 144% 증가한 169억원, 당기순이익은 2014년 1분기 대비 188% 증가한 1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

영업부문별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Brokerage부문에서는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2014년 1분기 대비 +36%) 등의 영향으로 수탁수수료기준 2014년 1분기 대비 24% 증가한 117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IB부문의 인수주선수수료는 2014년 1분기 대비 43% 증가한 67억 원을 기록하였고, Trading부문의 자기거래이익(상품운용손익,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은 2014년 1분기 대비 200%증가한 48억원을 시현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은 국내외 경제 상황 및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부동산 PF 관련 자산의 신용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추가적인 Credit cost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KB투자증권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금융환경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자기자본확대 등을 통한 대형화 및 생존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휴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수익구조 다변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상기와 같은 환경에서 당사의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금융지주회사인당사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 자회사 위험 (KB생명보험)

보험업부문 자회사인 KB생명보험의 2014년 영업이익은 14억원(연결기준)으로 2013년 -31억에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1분기 영업이익 또한 50억원으로 2014년 1분기 -16억에서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책임준비금전입액은 2014년 6,669억원(연결기준)으로 2013년 7,609억 대비 940억원 감소하였고, 2015년 1분기 말 기준 책임준비금전입액 또한 1,372억원(연결기준)으로 전년 동기 1,482억원(연결기준) 대비 1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급보험금은 2014년 기준 7,031억원(연결기준)으로 전년 동기 4,348억원 대비 2,68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당기순이익은 65억원(연결기준)으로 2013년 91억원 대비 26억원 감소하였고, 2015년 1분기 당기순이익 또한 57.74억(연결기준)으로 2014년 1분기 0.08억 원 대비 57.6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은 2014년 말 연결기준 7조 6,802억원으로 2013년 6조 9,456억원 대비 10.58%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저축성 보험 및 변액 보험의 판매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며 생명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12년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대내외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세가 전년 대비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 산업은 대내외의 불확실성 지속과 경기 성장 둔화 예상과 맞물려 비교적 낮은 성장이 예측됩니다. 주요 보험 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각 사의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전략에 따른 새로운 컨셉의 질병보험과 건강보험등의 출시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가보험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주식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 또한 낮은 성장이 전망됩니다. 일반 저축성 보험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상품 매력도 저하로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의 경쟁구도는 신규진출 보험사의 본격적 외형 확대 및 외자계 생보사의 공격적 영업 재개가 예상되며, 온라인 전용 신채널 도입 등을 통한 시장주도권 쟁탈 기회 모색을 통한 심화된 경쟁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BC제도하에서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 및 소비자 보호강화 관련 규제정책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내실 경영 위주의 경영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자회사 위험

이밖에도 당사는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KB신용정보, KB데이터시스템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특성상 최근의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실적 및 재무구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 현황 및 실적의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사항'- '타법인 출자 현황' 및 첨부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 그룹이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위험요소에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수익성, 자산건정성, 유동성, 자본적정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민은행을 바탕으로 한 당 그룹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유럽의 경기 하강 지속,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등 전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 둔화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나 STX 그룹 주요 계열사의 자율협약 신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부동산개발, 건설, 해운, 조선업 영위법인 및 관련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그룹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의 영업 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당 그룹의 비은행부문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은행부문이 그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가운데 은행부문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비은행부문은 은행부문과 달리 해당 업계내에서 차지하는 시장지위 및 규모 등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당 그룹의 LIG손해보험 편입 승인, 우리파이낸셜 지분 인수 등 수익구조 다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

으며 금융업계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망입니다.

2011년 3월 2일 당사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및 그룹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KB국민카드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부문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15년 1분기 기준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연결총자산 기준 89.35%, 당기순이익 기준 77.66%에 이르는 등 은행부문이 그룹 및 지주회사 실적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 기준 주요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분기순손익 및 총포괄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2015년 1분기			
	자산	영업수익 (매출)	분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국민은행(*1)	282,129,802	3,840,229	476,192	572,919
(주)KB국민카드(*1)	15,725,596	742,099	98,087	97,035
KB투자증권(주)(*1,2)	4,570,034	200,627	11,773	11,321
KB생명보험(주)(*1)	7,920,327	372,150	5,774	20,474
KB자산운용(주)(*1)	168,840	25,275	11,919	12,398
KB캐피탈(주)(*2)	4,245,198	84,164	17,070	16,715
(주)KB저축은행	797,968	12,757	1,405	1,188
KB부동산신탁(주)	211,035	10,522	3,630	5,627
KB인베스트먼트(주)(*1)	215,464	2,064	(2,414)	(3,150)
KB신용정보(주)	28,186	9,795	(579)	(579)
(주)KB데이터시스템	22,309	9,856	(466)	(474)

(*1) 연결기준으로 산출된 재무정보임.

(*2) 인수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을 포함한 금액임.

비은행 자회사들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카드를 제외할 경우 각 자회사들이 해당 금융권역에서 경쟁지위가 비교적 높지 않아, 당사는 당분간 은행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신용카드부문이 일부 보완하는 사업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당 그룹은 현재 자회사들의 해당 금융권역 내 경쟁지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업라인 다변화 수준이 경쟁 금융그룹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므로,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당 그룹의 LIG손해보험 편입 승인, 우리파이낸셜 지분 인수 등 수익구조 다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업계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망입니다.

라.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 우수하나 사업라인 확충 전략으로 자본적정성이 변동할 가능성 존재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이후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국민은행의 자본적정성 보완을 위해 국민은행에 대해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고 자회사들에 대한 대출 실행 등의 수요 발생으로 회사의 외부 조달이 확대된 바 있으나, 회사는 2009년 9월 유상증자 (1조 1,055억원)를 실시하여 차입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2015년 1분기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6,600억원 규모의 미상환 사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업라인 확충전략에 따라서는 회사의 자본적정성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은행은 2011년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자본감소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로 발행한 신증자본증권 (1조원) 전액 조기 상환 등의 영향으로 회사지분 매각, 후순위채 발행 및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 BIS비율은 13.55%로 하락하였습니다. 2012년 후순위채 발행과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BIS비율은 14.40%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2013년 말 BIS비율은 15.42%, 2014년 말 15.97%, 2015년 1분기말 16.37%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말 당사의 연결 BIS비율은 15.53%, 2015년 1분기말 기준 15.86%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8%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 대기업 부실화 및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건전성 우려 있으며 글로벌 경기 및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 그룹(연결기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4년 말 1.35%, 2015년 1분기말 1.37%로 2013년 1.69%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연결기준)의 건전성은 2012년 이후 일부 대기업 부실화와 경기침체 및 부동산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가계 및 카드부문의 건전성이 하락하였으나 2014년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구성 중 은행 비중이 총여신 및 고정이하여신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은행과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십억원, %, %p)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총여신	234,575	231,811	218,712	214,152
고정이하여신	3,202	3,131	3,706	3,001
고정이하여신비율	1.37	1.35	1.69	1.4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저하로 인한 신규부실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상각 및 매각을 통해서 고정이하여신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총당금 규모를 확대하여 추가부실에

대한 고정이하여신 총당금 Coverage Ratio 등 손실흡수능력은 과거에 비해 (2008년 12월 말 135%, 2012년 12월 말 161.2% (K-IFRS 적용에 따른 대손준비금 가산 기준)) 개선 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여신연체율 증가에 따라 2013년 12월 말 현재 총당금 고정이하여신 총당금 Coverage Ratio가 120.0%로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고정이하여신 총당금 Coverage ratio는 다시 138%로 개선되었으며 2015년 1분기 현재 136%를 기록 중입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경기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이 존재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비율 및 고정이하여신 총당금 Coverage Ratio 등이 상승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2013년 6월 말 ING그룹으로부터 ING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KB생명보험 잔여지분 49%를 인수하였으며, **당사가 보유하는 KB생명보험 지분은 51%에서 10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위해 2013년 6월 19일 예금보험공사와 **예한솔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9월 2일부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3일부로 KB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당사는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이하 "ING")와 2013년 4월 19일에 체결한 지분 인수 계약에 의거하여 ING가 보유한 KB생명보험 지분 49%(27,048,000주, 약 1,666억원)을 인수하였습니다. 금번 인수를 통해 당사가 보유하는 KB생명보험의 지분은 51%에서 10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의 관점에서 예한솔저축은행을 KB금융그룹에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2013년 5월 6일 예한솔저축은행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6월 19일 예금보험공사와 동 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9월 2일부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3일부로 KB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사. 2015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 순이익은 6,132억원으로 2014년 1분기 기준 분기 순이익 3,592억원 대비 70.7%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 환급 등의 일회성 요인과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증가, 건전성 개선에 따른 총당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1분기 보고서는 2015년 05월 15일에 공시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분기 분기 순이익은 6,132억원으로 2014년 1분기 기준 분기 순이익 3,592억원 대비 70.7%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 환급 등의 일회성 요인과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증가, 건전성 개선에 따른 총당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당사의 2015년 1분기보고서는 2015년 05월 15일에 공시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최근 3개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순이자이익	1,536,917	1,542,711	6,415,775	6,522,832	7,037,783
이자수익	2,711,690	2,898,504	11,635,296	12,356,930	14,210,106

이자비용	(1,174,773)	(1,355,793)	(5,219,521)	(5,834,098)	(7,172,323)
순수수료이익	382,097	313,385	1,382,729	1,479,239	1,566,706
기타영업손익	(245,454)	(171,251)	(1,040,909)	(1,304,765)	(1,531,942)
총영업이익	1,673,560	1,684,845	6,757,595	6,697,306	7,072,547
일반관리비	(1,077,035)	(990,864)	(4,009,694)	(3,983,564)	(3,845,610)
신용손실충당금반영전 영업이익	729,659	764,500	3,187,099	3,470,564	4,038,90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93,766)	(280,776)	(1,227,976)	(1,443,572)	(1,606,703)
영업이익	535,893	483,724	1,959,123	2,026,992	2,432,198
영업외손익	205,826	17,264	(57,698)	(211,701)	(133,55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41,719	500,988	1,901,425	1,815,291	2,298,644
당기순이익	613,155	359,234	1,415,111	1,274,698	1,740,133

자료 : 당사 2015년 1분기 분기보고서

아.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업의 특성상 다수 회원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 관리 및 여러가지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직원에 의한 유출, 해킹에 의한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제재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업의 특성상 다수 회원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 및 여러가지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직원에 의한 유출, 해킹에 의한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고객정보가 절취되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사건의 경과 및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제재내역

2014년 1월 8일 검찰 수사발표에 의해, 2013년 상반기 중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외부 신용정보회사 직원에 의해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가 불법 절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KB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의 위반 사실을 이유로 2014년 2월 16일에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6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구분	내용
정지업무	신용카드업무 및 부대업무의 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회원의 신규모집 및 신규카드 발급업무 (단,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모집 및 발급 허용)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규 자금 융통 약정의 체결 -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의 신규 취급
정지기간	2014.2.17 ~ 2014.5.16 (3개월)
관련공시	2014.2.17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절취된 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카드 유효기한, 비밀번호, CVC값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카드 위·변조, 복제 등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접수된 2차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금번 사고로 인해 카드위·변조, 복제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KB국민카드는 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2. 사고수습 관련 비용지출내역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약 223만건의 카드가 재발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68억원의 재발급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 4,300만명에게 개인정보유출내용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약 101억원의 우편발송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점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고객 민원 상담 및 카드 재발급거래를 수행했으며, 콜센터에서도 연장근무, 정규직원 추가 투입 등을 통해 24시간 고객민원에 응대하였습니다. 콜센터 확대 운영으로 인해 2014년 2월 말까지 약 1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97건의 정신적 피해보상 취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가액은 약51,985백만원입니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수 있으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소송 규모 및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 재발방지대책

KB국민카드는 동 사고 발생 후 가상PC환경 구축, 인터넷망 분리, 지문 인식 사용자 인증 등을 통해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전사 프로세스 개선사항 도출 및 실질적 이행 추진을 위한 종합대응TFT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 업무프로세스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관리 및 운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한층 더 강화된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평판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익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2월 24일 우리금융지주와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우리파이낸셜의 지분 52.02%(11,180,630주)를 거래종료일('14.3.20)에 양수하였으며, 케이비캐피탈(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지표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2월 24일 우리금융지주와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우리파이낸셜의 지분 52.02%(11,180,630주)를 거래종료일('14.3.20)에 양수하였으며, 케이비캐피탈(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주) KB금융 지주	201-86-08254	2014년 02월 24일	장외매수(+)	의결권 있는 주식	-	11,180.630	11,180.630	25.032원	2014년 2월 24일 우리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 (SPA)을 맺은바 있음

***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한 계약체결일**

케이비캐피탈이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당기순이익 등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자회사로 편입된 케이비캐피탈로 인한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당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과서는 본 건 인수 등으로 수반되었던 당사의 재무적인 부담 정도를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젤Ⅲ는 한층 더 강화된 조건이며, BIS자기자본 외에 보통주자본(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 기본자본(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 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기에 사용하기 위해 평상시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을 2.5% 추가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BIS비율 산출 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은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매년 10%씩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 순차적 적용함)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개정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법령정보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젤Ⅲ 도입으로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2014년 10월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 결정 등으로 당사와 주요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임원진에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9월 당사의 이사회가 임영록 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2014년 11월 21일 전 KB금융 부사장이었던 윤종규 회장이 당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10일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결정하였고, 경영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또한 동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 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이사 8명에 대한 선임결의하여 이사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진 부재에 대한 경영공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로서 향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의 평판, 시장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3년 10월 부터 시작된 차기 주 전산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2014년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달간의 심의 후 8월 22일 당사의 임영록 전 회장과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이건호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9월 4일 금융감독원은 추가로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은행장에 대한 제재를 '문책 경고'로 징계수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임영록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추가 상향하여 9월 12일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이건호 전 은행장은 사퇴하였으며, 임영록 전 회장은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에 대하여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9월 17일 임영록 전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였으며, 10월 01일 법원의 일시 대표이사 선임 결정으로 윤웅원 일시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임 회장 등 경영진 선출 작업을 진행한 바, 2014년 11월 21일 전 KB금융 부사장이었던 윤종규 회장이 당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로서 경영진 부재에 대한 경영공백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그 후 12월 10일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결정하였고, 이전에 사의를 표명한 2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9명 사외이사 전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하였고, 201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또한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 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이사 8명에 대한 선임결의하여 이사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진 부재에 대한 경영공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로서 향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의 평판, 시장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2014년 05월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한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당사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본 건 인수 등으로 수반된 동사의 재무적인 부담 정도를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사업다각화 및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손해보험 업계 4위의 시장점유율(14%대)을 보유한 LIG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 05월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 6월 최종적으로 우선인수 협상대상자로 확정되었고, LIG손해보험 지분 11,682,58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당사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당사는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약에서 결정된 LIG손해보험의 인수대금은 6,450억원입니다.

LIG손해보험은 2015년 1분기말 기준 총자산 26조 1,680억원, 총자본 1조 9,440억원, 분기순이익 770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3개 원수보험사중 LIG손해보험을 포함한 상위 4사가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LIG 손해보험의 인수는 당사의 보험사업 부분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G손해보험 주요지표]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총자산	26,168	23,929	20,637	18,883
자본총계	1,944	1,785	1,502	1,595
순이익	77	139	117	200
ROE	15.84	7.79	7.79	12.54
손해율	85.9	87.5	85.9	84.0
RBC	181.2	173.6	172.9	177.0

자료 : LIG손해보험 2015년 1분기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ROE는 연율화한 수치임

다만, 투자자들께서는 본 건 인수 등으로 수반된 동사의 재무적인 부담 정도를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해재무비율 등의 유

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의사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분	증권회사	
	회사명	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	HMC투자증권(주)	00137997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HMC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상대로 한 모집·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HMC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HMC투자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의 "채무증권 인수 업무등에 관한 내부 규정"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재무구조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평가 일정

구분	일시
기업실사 기간	2015.06.08 ~ 2015.06.19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15.06.19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제출	2015.06.23

(2)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HMC투자증권(주)	Advisory팀	김영오	팀장	실사총괄	기업금융업무 8년

HMC투자증권(주)	Advisory팀	이성철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4년
HMC투자증권(주)	Coverage2팀	강승현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4년
HMC투자증권(주)	Advisory팀	임정혁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4년

[발행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	이재근	부장	자금 및 경영관리 총괄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	신승협	팀장	자금조달 총괄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	박명석	차장	자금조달 및 실무

3. 기업실사

신고서 주요내용	점검사항	결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 참조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기업실사보고서 (주2)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2) 참조
투자위험요소	기업실사보고서 (주3)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3) 참조
자금의 사용목적	기업실사보고서 (주4)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4) 참조
경영능력 및 투명성	기업실사보고서 (주5)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5) 참조
회사의 개요	기업실사보고서 (주6)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6) 참조
사업의 내용	기업실사보고서 (주7)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7) 참조
재무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8)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8) 참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기업실사보고서 (주9)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9) 참조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0)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0) 참조
주주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1)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1) 참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2)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2) 참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기업실사보고서 (주13)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3) 참조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4)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4) 참조

* 보다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의견

가. 당사는 2008년 9월 29일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주식이전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KB국민은행), 신용카드업(KB국민카드), 금융투자업(KB투자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생명보험), 저축은행업(KB저축은행), 기타(KB신용정보, KB데이터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비은행 사업부문 강화와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을 P&A 인수하여 2012년 1월 13일 KB저축은행으로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인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인베스트먼트 및 KB생명보험은 대출채권 등 유동화 자산의 양수·관리·운용 및 처분 등을 위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투자수익창출을 위한 투자조합·PE 및 사모펀드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는 우리파이낸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상태로 3월 20일 인수하였고, 케이비캐피탈로 사명 변경하였습니다.

다. (수익성) 국내외의 대외 경제 여건 변화와 금융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동사의 2013년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몇몇 대기업 구조조정과 자본잠식 업체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상각비 발생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운용수익 저하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201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 순이익은 1조4,151억원으로 2013년 기준 당기 순이익 1조2,747억원 대비 11.0% 상승하면서 ROA 및 ROE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2015년 1분기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6,132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70.7%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환급 등의 일회성 요인과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증가, 건전성 개선에 따른 충당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총자산순이익률(ROA)	0.78	0.46	0.43	0.61
자기자본순이익률(ROE)	8.78	5.14	4.91	7.03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2015년 1분기 비율은 연간환산 기준

라. (자산건전성) 지주회사 체제 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 적극적인 부실자산 감축 및 지속적인 충당금적립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자산건전성이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당금적립 수준 및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우수한 위험완충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그룹 연결기준. 단위: 십억원, %, %p)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총여신	234,575	231,811	218,712	214,152
고정이하여신	3,202	3,131	3,706	3,001
고정이하여신비율	1.37	1.35	1.69	1.4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마. (자본적정성) 국민은행 및 국민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국민은행(2015년 1분기 연결기준 BIS비율 16.37%)과 동사(2015년 1분기 연결기준 BIS비율은 15.63%)의 전반적인 위험 완충능력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 동사 BIS비율 등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자기자본(A)	28,412,485	28,347,675	27,296,535	26,907,004
위험가중자산(B)	179,105,564	182,485,957	177,514,060	193,510,143
총자본비율(A/B)	15.86	15.53	15.38	13.90

- 주1) 2012년 Basel I 기준, 2013년 이후 Basel III 기준
- 주2) 2015년 1분기는 잠정치 기준
- 주3)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바.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지주회사 전환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차등적으로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바젤Ⅱ 적용에 대한 준비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 2014년 10월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 결정 등으로 동사와 주요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임원진에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9월 동사의 이사회가 임영록 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2014년 11월 21일 전 KB금융 부사장이었던 윤종규 회장이 당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10일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결정하였고, 경영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또한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 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이사 8명에 대한 선임을 결의하여 이사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진 부재에 대한 경영공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회사로서 향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동사의 평판, 시장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당사는 2014년 05월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한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당사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동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차.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재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카.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9회 무보증 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에서 A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사의 사업안정성,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 은행업의 특수성 및 확고한 시장 지위 등과 같은 동사의 경영 여건과 상기의 제반사항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해 볼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9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상황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투자설명서, 분기 및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사업설명서등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사업, 회사, 기타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HMC투자증권(주)은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외부전문가 의견(회계사, 변호사 등)

- 해당사항 없음

2015년 06월 22일

대표주관회사 HMC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흥 제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제9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5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323,960,000
순 수 입 금 [(1)-(2)]	149,676,04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9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60,000,000	발행총액 1,500억원 x 0.04%	
인수수료	225,000,000	발행총액 1,500억원 x 0.15%	
사채관리수수료	2,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34,460,000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부가세 포함)	
보 증 료	-	-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연10만원*(7년) (최고한도: 50만원)
	등록비용	500,000	발행금액의 1/100,000 (최고한도: 50만원)
	자산실사수수료	-	-
	법률자문수수료	-	-
	기 타	-	-
합 계	323,960,000	-	

*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보유자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주)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2. 자금의 사용목적

[제9회]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 타	계
-	-	-	150,000	150,000

<세부사용내역>

[제9회]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내용	사용금액	사용 예정 시기
기타자금	LIG 손해보험 인수자금	150,000	2015년 06월

당사는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약에서 결정된 LIG손해보험의 인수대금은 6,450억원입니다.

동 인수대금 6,450억원 중 1,500억원을 금번에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인수대금은 추가로 발행하는 회사채와 배당금 및 당사가 기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사채의 현황

(단위: 백만원)

종 목	발행일자	권면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보증 또는 수탁기관	만기일	비고
KB금융지주3-1	2013-08-13	150,000	공모	3.14	한국증권금융(주)	2016-08-13	-
KB금융지주3-2	2013-08-13	130,000	공모	3.46	한국증권금융(주)	2018-08-13	-
KB금융지주3-3	2013-08-13	70,000	공모	3.65	한국증권금융(주)	2020-08-13	-
KB금융지주4	2014-03-17	150,000	공모	3.024	한국증권금융(주)	2017-03-17	-
KB금융지주5-1	2014-03-19	80,000	공모	3.314	한국증권금융(주)	2019-03-19	-
KB금융지주5-2	2014-03-19	50,000	공모	3.50	한국증권금융(주)	2021-03-19	-
KB금융지주6	2015-02-26	30,000	공모	2.377	한국증권금융(주)	2022-02-26	-
KB금융지주7	2015-06-23	150,000	공모	1.975	한국증권금융(주)	2018-06-23	-
KB금융지주8	2015-06-23	100,000	공모	2.339	한국증권금융(주)	2020-06-23	-

[기발행사채의 총액 : 910,000 백만원]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가일	회차	등급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15년 06월 04일	제9회	AAA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15년 06월 05일	제9회	AAA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15년 06월 05일	제9회	AAA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9회 무보증 사채에 대하여 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채권 등급평정은 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채권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채권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 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안정적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KB금융지주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4. 기타 투자이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이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이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